

전국체전

■ 광주체전 화제

“광주 발전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뉴질랜드 동포 선수단

“광주가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질랜드동포선수단은 9일 대주건설 초청으로 광주시 광천동 대주 피오레 모델하우스를 찾은 자리에서 “월드컵경기장과 높은 솜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광주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며 광주의 발전상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특히 30년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뉴질랜드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은 감회가 남달라 수박이 없었다.

이 회장은 대주건설 관계자로부터 주거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은 자리에서 “지난 77년 전국체전 당시 선수자격으로 참가했던 광주와 현재의 광주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며 “대주건설이 뉴질랜드 최대 높이의 건물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의 높은 건축기술 수준이 현재에서도 명성을 떨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건설은 지난 2002년 뉴질랜드 현



9일 대주건설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뉴질랜드동포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법인인 대주하우징을 세우고 오를랜드시에 65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건설은 이런 인연으로 이날 뉴질랜드동포선수단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선수단 71명 전원을 초청, 환영만찬을 갖고 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에 앞서 전국체전 축구 예선경기에서 기본종계 승리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뉴질랜드동포선수단은 6개 종목에 남자 54명, 여자 16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상태다.

선수단은 특히 스쿼시와 탁구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으며 총 16개 팀이 참가한 재외동포 선수단에서 8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희중 뉴질랜드동포선수단 단장은 이날 행사에서 “뉴질랜드에서 코리야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 대주건설이 선수단을 초청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뉴질랜드에 돌아가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5·18 묘지 참배 후 ‘광주 아픔’ 실감”

호주 동포 선수단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광주전국체전에 참가한 김현(54·시드니 거주) 호주한인체육회 이사는 9일 오전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와 내 조국의 아픈 역사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며 첫 참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전 호주동포선수단 120명과 함께 5·18 묘지를 찾은 김 이사는 “순국 열사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화의 역사를 알고 난 뒤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참배 후 서로 손을 잡고 조국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고 약속했다”며 참배 분위기를 전했다.

“5·18 묘지 참배를 위해 전 선수단이 호주에서 양복을 준비해왔다”고 밝힌 김 이사는 “시합 때문에 참배하지 못한 선수들 중 한인 1.5세와 2세 등이 많은 데 경기 후 꼭 참배토록 해 열사들의 애국심을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체전에 참가중인 호주동포선수단이 지난 8일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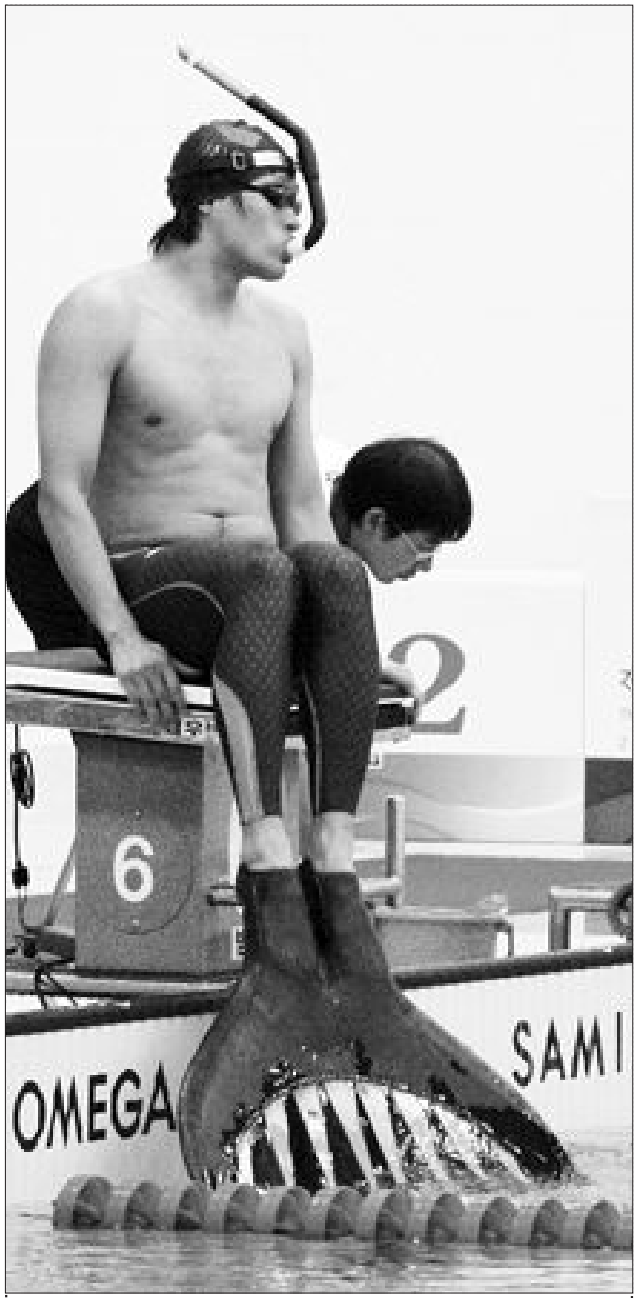
호주동포선수단이 광주의 역사에 이처럼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20년전에 맺어진 인연 때문이다.

이번 해외동포선수단 중 일부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선수단 200명을 이끌고 온 김구홍 호주동포 선수단장은 “지난 87년 광주체전때 호주동포선수단이 처음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했고, 강대원 재호주대 한체육회장이 당시 선수단의 기수를 맡았었다”며 광주와의 오래된 인연을 소개

했다. 골프 등 모두 6개 종목에 참가하는 호주동포선수단은 축구, 골프 등이 강세지만 이번 대회에선 성적보다는 모범 선수단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단장은 “우리는 2005년·2006년 체전에서 2년 연속 모범 선수단상을 받을 정도로 매너를 중요시 하는 팀”이라며 “과열된 승부보다는 진한 동포애를 느끼고 돌아가는 게 참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영장에 ‘인어’ 출현?

입에 숨대롱, 발에 지느러미

체전 이색경기 ‘수중’ 눈길

9일 오후 영주수영장에서는 ‘수중’이라는 낯선 경기의 ‘표면 100m’부문 결승전이 열렸다.

광주대표로는 유일하게 이 종목에 출전한 나경수(27·광주수중협회)씨가 6분 레인(LANE) 앞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진>

입에 스노클(스노클·숨대롱)을 물고 발에 핀(FIN·물고기 꼬리지느러미 모양의 추진기)만 끼고 있지 않으면 수영경기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에서 이 종목의 표면 100m와 200m부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나씨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 다른 선수들의 경계를 받고 있었다.

‘팅’ 출발을 알리는 심판의 총소리가 들리자 선수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핀을 이용해 물고래처럼 헤엄치는 선수들의 속력은 수영보다 훨씬 빨랐고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관중은 이 모습을 보고 “인어공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36초80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m 승부가 판가름 났다.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한 주인공은 나씨가 아닌 경기도 대표선수였다. 나씨는 아쉽게 5위에 머물렀다.

/글·사진=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여기는 무등골

박태환 경기일정 TV중계위해 앞당겨

○제88회 광주 전국체전 최고 스타 박태환이 경기 일정까지 바뀌버렸다. 체전 운영본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시 서구 풍암동 영주수영장에서 열리는 경영 경기시간을 30분~1시간30분씩 앞당겼다.

박태환이 단독 종목으로 금빛 물살을 가를 자유형 200m는 11일 오후 4시에서 3시30분으로, 계영 400m는 12일 오후 4시에서 3시로, 자유형 100m는 13일 오후 4시에서 2시30분으로 조정됐다.

주관방송사인 KBS가 확보한 방송 시간대에 박태환의 경기 장면을 실황 중계하기 위한 조치라고 운영본부는 설명했다.

박광태 시장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하겠다”

○프로축구 K-리그 광주 상무의 명맥을 이어나갈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이 추진된다.

광주 상무 구단주인 박광태 광주시장은 9일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 상무가 2009년 이후엔 새 구단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 컨소시엄 형태의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몇몇 기업들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초엔 창단 작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출범한 광주 상무는 현재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라인 마라톤 참가자 부족 취소...동호인들 불만

○(사)대한인라인롤러연맹(회장 김응우)이 이번 전국체전 부대행사로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기로 했다가 참가자 수 부족 등을 이유로 대회를 취소하자 참가 동호인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주최 측은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동호인마라톤 및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오는 14일 마라톤과 같은 코스에서 개최기로 했으나,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다 동호인의 관심부족으로 참가자 수도 80여 명에 불과해 대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회 취소를 결정하고, 참가비(2만원)은 오는 28일 돌려주기로 했다.

YWCA 워터 청소년들, 독일교포 선수단 응원

○독일 교포 선수단을 위해 광주 YWCA 워터 청소년들이 응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9일 오전 조선대학교 축구장에서 펼쳐진 독일교포들과 스페인교포의 축구 경기에서 YWCA 청소년 워터의 청소년 10여 명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응원막대 풍선을 흔들며, ‘최강 재독’을 연호했다.

이들의 응원에 힘입은 재독 선수단은 1대0의 신승을 거둔 뒤 응원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등 호쾌한 광경을 연출했다.

양궁 대표급 선수들 탈락...“국제대회보다 어려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관왕 박성현(24·전북)과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연철(23·경기)이 전국체전에서 각각 16위, 23위로 처지며 국가대표 이름값을 하지 못해 양궁은 세계대회보다 국내대회가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

도하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최은영(23·충북)은 5위, 윤미진(24·경기)은 9위, 최근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이성진(22·전북)은 24위로 밀려났다.

전북도청 서오석 감독은 박성현과 이성진의 부진에 대해 ‘바람 탓’을 했는데 그는 “오늘 양궁장 맨 왼쪽에서 쏜 윤옥희 같은 선수들은 성적이 좋았지만 박성현이나 이성진처럼 가운데 쪽에서 쏜 선수들은 맞바람이 불어 불리했다”며 “박성현이 70m에서 잘 안 쏘는 6점을 쏜 것이나 345점에도 못 미친 것도 바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체전 특별취재단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newspape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ee and text promoting its quality and reliability.